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2026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 3(1) 동백꽃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동백꽃’이랑 ‘홍길동전’이 너무 길어서 공부가 힘든데  
핵심이 뭔가요?

두 작품은 성격도 다르고 시대 배경도 다르지? 그래서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핵심을 잘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



그럼 ‘동백꽃’은 어떤 문제가 자주 나와요?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한 해학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특징이야. 특히 ‘감자’라는 소재를 통해 갈등이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닭싸움을 통한 갈등의 고조, 그리고 동백꽃 속에서의 화해를 통한 갈등의 해결로 이어지는 이 갈등의 전개 과정을 잘 기억해 둬야 해.



아, 그래서 감자가 왜 중요한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군요.  
소재들을 잘 외워둬야겠어요. 그런데 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어리숙한 성격의 ‘나’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점순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한다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해석하는 순진한 태도가 드러나서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단다. 즉, 독자 입장에서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나’는 모르고 혼자 오해하고 분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해학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거지. 만약 점순이의 시점이거나, 3인칭 시점이었다면 이런 오해나 어리숙함이 그렇게 실감나게 전달되진 않았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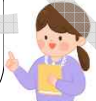
아~ 이제 이해했어요! ‘나’의 시선이니까 감정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네요! 그럼 ‘홍길동전’에서는 어떤 게 중심이예요?

‘홍길동전’은 불합리한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야. ‘호부호형’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며 입신양명을 꿈꾸는 길동의 내면이 자주 출제돼.



‘입신양명’이랑 ‘호부호형’이라는 말 꼭 외워야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홍 판서와의 갈등 장면, 어머니와의 이별 장면을 통해 길동의 신분적 한계와 그로 인한 결단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해.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AI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동백꽃’이랑 ‘홍길동전’이 너무 길어서 공부가 힘든데  
핵심이 뭘까요?

두 작품은 성격도 다르고 시대 배경도 다르지? 그래서 ‘\_\_\_’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핵심을 잘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



그럼 ‘동백꽃’은 어떤 문제가 자주 나와요?

‘동백꽃’은 \_\_\_\_\_ 시점을 활용한 \_\_\_\_\_ 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특징이야. 특히 ‘\_\_\_’라는 소재를 통해 갈등이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_\_\_\_\_ 을 통한 갈등의 고조, 그리고 \_\_\_\_\_ 속에서의 화해를 통한 갈등의 해결로 이어지는 이 갈등의 전개 과정을 잘 기억해 둬야 해.



아, 그래서 감자가 왜 중요한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군요.  
소재들을 잘 외워둬야겠어요. 그런데 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_\_\_\_\_ 한 성격의 ‘\_\_\_’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점순이 ‘나’에게 \_\_\_\_\_ 는 상황을 제대로 \_\_\_\_\_ 하지 못하고 해석하는 순진한 태도가 드러나서 \_\_\_\_\_ 을 유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단다. 즉, 독자 입장에서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나’는 모르고 혼자 오해하고 분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_\_\_\_\_ 인 분위기가 생기는 거지. 만약 점순이의 시점이거나, 3인칭 시점이었다면 이런 오해나 어리숙함이 그렇게 실감나게 전달되진 않았을 거야.



아~ 이제 이해됐어요! ‘나’의 시선이니까 감정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네요! 그럼 ‘홍길동전’에서는 어떤 게 중심이예요?

‘홍길동전’은 \_\_\_\_\_ 에 대한 \_\_\_\_\_ 이 중심이야. ‘\_\_\_\_\_’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며 \_\_\_\_\_ 을 꿈꾸는 길동의 내면이 자주 출제돼.



‘입신양명’이랑 ‘호부호형’이라는 말 꼭 외워야겠네요!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2026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3(1) 동백꽃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발단]

[오늘(현재)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 :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당한 것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음. 이 문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뽀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점순네에 대한 '나'의 위축감이 드러남.)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 하고 모가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똑똑 떨어진다.

▶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쪼여 피를 흘림.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닭이 다친 것을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느끼는 '나'. '나'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 '나'가 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을 떼어 놓음.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울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점순이 닭싸움을 붙인 이유를 추측하는 '나')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 요즘 들어 '나'의 수탉과 자기 집 수탉을 싸우게 하는 점순

[발단 소주제] 점순이 이유 없이 '나'의 닭을 꼬여 내어 닭싸움을 시킴.(현재)

[전개]

[나흘 전(과거)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 나흘 전 사건을 회상하는 '나'. 이 글의 구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구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율타리 엮는 데 뽕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호감을 표현하는 점순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는 '나')

▶ 나흘 전 점순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옴.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나’는 평소와 다른 점순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낌.)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되?”(‘나’의 무뚝뚝한 성격이 드러남.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 지문 분석

길동이 점점 자라 여덟 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래서 [공은 길동을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천해, 길동이 아버지나 형이니 하고 부를 때마다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 ]([ ]: 천한 출생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길동. '길동'의 고민의 원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 길동이 열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함.

어느 9월 보름께(시간적 배경)가 되자, 달빛은 처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히 불어와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문관으로서의 출세)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오래도록 빛내는 것(무관으로서의 출세)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 나는 어찌하여 이 한 몸 적막하고, 부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 ]: 열자로 태어나 호부호형할 수 없는 현실에 한탄하는 길동)

하고, 뜰에 내려와 검술을 익히고 있었다.

▶ 입신양명에 대한 길동의 포부와 신세한탄(길동이 바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입신양명'과 '호부호형'이라는 단어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우연적인 사건 전개)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이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했다.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 다만,(모든 이가 평등하다 말하는 길동)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차별에 대한 한을 하소연하는 길동)”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일부러 책망하는 체하며 말했다.(길동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 흥 판서)

“네 무슨 말이냐?”

길동이 절하고 말씀드리기를,

[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서 길러 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 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 ]([ ]: 차별로 인한 서러움을 토로하는 길동)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방자해질까 염려되어 크게 꾸짖어 말했다.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당시 사회 제도를 수용하는 흥 판서. 당시 사회에 대한 길동과 흥 판서의 관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고 하자, [ 그제야 길동은 침소로 돌아와 슬퍼해 마지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한지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 ]: 흥 판서와의 대화 이후 갈등이 더욱 심화된 길동)

▶ 서러움을 토로하는 길동을 꾸짖는 흥 판서

하루는 길동이 어머니의 침소에 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모친과 더불어 전생의 연분이 중하여 이번 세상에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2026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 3(1) 동백꽃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 \_\_\_\_ ]

[ 오늘(현재)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 ]([ ]: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당한 것이 \_\_\_\_ 일어난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음. 이 문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뽀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의 \_\_\_\_를 비교함으로써 점순네에 대한 ‘나’의 \_\_\_\_이 드러남.)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아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 ‘나’의 수탉이 \_\_\_\_네 수탉에게 쪼여 \_\_\_\_를 흘림.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닭이 다친 것을 마치 \_\_\_\_이 다친 것처럼 느끼는 ‘나’. ‘나’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 ‘나’가 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을 \_\_\_\_.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울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점순이 \_\_\_\_을 붙인 \_\_\_\_를 추측하는 ‘나’)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 요즘 들어 ‘나’의 수탉과 자기 집 수탉을 \_\_\_\_ 하는 점순  
[발단 소주제] 점순이 이유 없이 ‘나’의 닭을 꼬여 내어 \_\_\_\_을 시킴.(현재)

[ \_\_\_\_ ]

[ 나흘 전(\_\_\_\_) 갑자기 쪼잔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 ]: 나흘 전 사건을 \_\_\_\_하는 ‘나’. 이 글의 구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_\_\_\_적 구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치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_\_\_\_을 표현하는 점순의 \_\_\_\_를 알아채지 못하는 ‘나’)

▶ 나흘 전 점순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어옴.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나’는 평소와 다른 점순의 태도에 \_\_\_\_을 느낌.)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나’의 \_\_\_\_한 성격이 드러남.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

“너 일하기 좋니?”

또는



지문 확인

길동이 점점 자라 여덟 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백 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래서 [공은 길동을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천해, 길동이 아버지니 형이니 하고 부를 때마다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 ]([ ]: \_\_\_\_\_으로 인해 \_\_\_\_\_을 받는 길동. '길동'의 고민의 원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 길동이 \_\_\_\_\_로 태어난 것을 한탄함.

어느 9월 보름께(시간적 배경)가 되자, 달빛은 처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히 불어와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_\_\_\_\_으로서의 출세)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오래도록 빛내는 것(\_\_\_\_\_으로서의 출세)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 나는 어찌하여 이 한 몸 적막하고, 부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 ]: 얼자로 태어나 \_\_\_\_\_할 수 없는 현실에 \_\_\_\_\_하는 길동)

하고, 뜰에 내려와 검술을 익히고 있었다.

▶ \_\_\_\_\_에 대한 길동의 포부와 신세한탄(길동이 바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입신양명’과 ‘호부호형’이라는 단어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_\_\_\_\_적인 사건 전개)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이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했다.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 다만(모든 이가 \_\_\_\_\_하다 말하는 길동)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_\_\_\_\_에 대한 한을 하소연하는 길동)”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일부러 책망하는 체하며 말했다.(길동의 의도를 애써 \_\_\_\_\_하는 흥 판서)

“네 무슨 말이냐?”

길동이 절하고 말씀드리기를,

[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서 길러 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 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 ]([ ]: \_\_\_\_\_로 인한 \_\_\_\_\_을 토로하는 길동)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공이 이 말을 듣고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 하면 방자해질까 염려되어 크게 꾸짖어 말했다.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당시 \_\_\_\_\_를 \_\_\_\_\_하는 흥 판서. 당시 사회에 대한 길동과 흥 판서의 관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고 하자, [ 그제야 길동은 침소로 돌아와 슬퍼해 마지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한지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 ]: 흥 판서와의 대화 이후 \_\_\_\_\_이 더욱 심화된 길동)

▶ \_\_\_\_\_을 토로하는 길동을 \_\_\_\_\_ 흥 판서

하루는 길동이 어머니의 침소에 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모친과 더불어 전생의 연분이 중하여 이번 세상에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습니다. 그러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2026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 3(1) 동백꽃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동백꽃」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b>동춘</b> 소설
성격	<b>향토적</b> , <b>해학적</b>
배경	1930년대 <b>강원도</b> 농촌의 어느 마을
주제	<b>사춘기</b> <b>남녀</b> 의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인칭</b> <b>주인공</b> 서술자의 시선으로 전개됨.</li> <li>•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b>역순행적</b> 구성 방식을 취함.</li> <li>• <b>토속어</b>, <b>비속어</b>, 구어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م.</li> </ul>

2. 동백꽃의 시점

서술자	사건의 주인공
'나'	'나'
↓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자와 사건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인 '나'이므로 '나'의 <b>마음</b>이 생생하게 표현됨.</li> <li>•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나'의 <b>순박</b>하고 우둔한 모습을 통해 <b>해학적</b>인 분위기를 조성함.</li> </ul>	

3. 감자의 의미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 대한 '점순'의 <b>관심</b>과 <b>호의</b>를 드러냄.</li> <li>• '나'와 '점순'이 <b>갈등</b>을 시작하게 되는 매개체임.</li> <li>• '나'와 '점순'의 <b>사회적 계층</b>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줌.</li> </ul>
----	---

4. '나'의 집과 '점순'네의 관계

'나'의 집	'점순'네
<b>소작인</b>	<b>마름</b>
'점순'네에게 <b>땅</b> 을 <b>빌려</b> 집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양식도 꺾다 먹음.	'나'의 집에 땅을 빌려 주어 집을 짓고 땅을 소작할 수 있게 함.

일반적인 남녀 관계와 달리 **마름**의 딸이면서 **적극적**인 '점순'과, **소작인**의 아들이면서 **어수룩한** '나' 사이의 관계가 독자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함.

5. 소재로 드러나는 「동백꽃」 속 갈등 양상

<b>감자</b>	'점순'이 '나'에 대한 <b>호감</b> 의 표현으로 '나'에게 감자를 건네나, '나'는 '점순'의 말에 <b>자존심</b> 이 상하여 감자를 <b>거절</b> 함.	'점순'과 '나'의 <b>갈등</b> 시작
<b>닭싸움</b>	'점순'이 '나'의 <b>씨암탉</b> 을 괴롭히고,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붙이자, 화가 난 '나'는 '점순'네 닭을 <b>때려죽임</b> .	'점순'과 '나'의 갈등 <b>진행</b>
<b>동백꽃</b>	'점순'은 '나'가 닭을 죽인 사실을 <b>감추어</b> 주고, '나'와 함께 <b>동백꽃</b> 속으로 넘어짐.	'점순'과 '나'의 갈등 <b>해결</b>

6. 「홍길동전」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b>영웅</b> 소설
성격	현실 <b>비판적</b> , 영웅적, <b>전기적</b>
배경	조선 시대
주제	불합리한 현실 <b>비판</b> 과 <b>이상</b> 세계의 실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최초의 <b>한글</b> 소설임.</li> <li>• 영웅의 <b>일대기적</b> 구성 방식을 취함.</li> </ul>



TEST 1단계

1. 「동백꽃」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춘 소설
성격	□토적, □학적
배경	1930년대 □원도 농촌의 어느 마을
주제	□춘기 □녀의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칭 □인공 서술자의 시선으로 전개됨.</li> <li>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li> <li>□속어, □속어, 구어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li> </ul>

2. 동백꽃의 시점

서술자	사건의 주인공
□	□
=	
↓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술자와 사건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인 □이므로 □의 □음이 생생하게 표현됨.</li> <li>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의 □박하고 우둔한 모습을 통해 □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함.</li> </ul>	

3. 감자의 의미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 대한 □의 □심과 □의를 드러냄.</li> <li>□와 □순이 □등을 시작하게 되는 매개체임.</li> <li>□와 □순의 □회적 □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줌.</li> </ul>
----	--

4. □의 집과 □순네의 관계

□의 집	□순네
□작인	□름
□순네에게 □을 □려 집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양식도 꺾다 먹음.	□의 집에 땅을 빌려 주어 집을 짓고 땅을 소작할 수 있게 함.
↓	
일반적인 남녀 관계와 달리 □름의 딸이면서 □극적인 □순과, □작인의 아들이면서 □수룩한 □ 사이의 관계가 독자로 하여금 □미를 느끼게 함.	

5. 소재로 드러나는 「동백꽃」 속 갈등 양상

□자	□순이 □에 대한 □감의 표현으로 □에게 감자를 건네나, □는 □순의 말에 □존심이 상하여 감자를 □절함.	□순과 □의 □등 시작
↓		
□싸움	□순이 □의 □암탉을 괴롭히고, 자신의 수탉과 □의 수탉을 싸움 붙이자, 화가 난 □는 □순네 닭을 □려죽임.	□순과 □의 갈등 □행
↓		
□백꽃	□순은 □가 닭을 죽인 사실을 □추어 주고, □와 함께 □백꽃 속으로 넘어짐.	□순과 □의 갈등 □결

6. 「홍길동전」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웅 소설
성격	현실 □판적, 영웅적, □기적
배경	조선 시대
주제	불합리한 현실 □판과 □상 세계의 실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최초의 □글 소설임.</li> <li>영웅의 □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함.</li> </ul>



TEST 3단계

1. 「동백꽃」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소설
성격	□□적, □□적
배경	1930년대 □□□ 농촌의 어느 마을
주제	□□□ □□의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서술자의 시선으로 전개됨.</li> <li>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적 구성 방식을 취함.</li> <li>□□□, □□□, 구어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li> </ul>

2. 동백꽃의 시점

서술자	사건의 주인공
‘□’	‘□’
↓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술자와 사건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인 ‘□’이므로 ‘나’의 □□이 생생하게 표현됨.</li> <li>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나’의 □□하고 우둔한 모습을 통해 □□적인 분위기를 조성함.</li> </ul>	

3. 감자의 의미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에 대한 ‘점순’의 □□과 □□를 드러냄.</li> <li>‘나’와 ‘점순’이 □□을 시작하게 되는 매개체임.</li> <li>‘나’와 ‘점순’의 □□□ □□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줌.</li> </ul>
----	---

4. ‘나’의 집과 ‘점순’네의 관계

‘나’의 집	‘점순’네
□□□	□□
‘점순’네에게 □을 □□ 집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양식도 꺾다 먹음.	‘나’의 집에 땅을 빌려 주어 집을 짓고 땅을 소작할 수 있게 함.
↓	
일반적인 남녀 관계와 달리 □□의 딸이면서 □□적인 ‘점순’과, □□□의 아들이면서 □□□한 ‘나’ 사이의 관계가 독자로 하여금 □□를 느끼게 함.	

5. 소재로 드러나는 「동백꽃」 속 갈등 양상

□ □	‘점순’이 ‘나’에 대한 □□의 표현으로 ‘나’에게 감자를 건네나, ‘나’는 ‘점순’의 말에 □□□이 상하여 감자를 □□함.	‘점순’과 ‘나’의 □□ 시작
□ □ □	‘점순’이 ‘나’의 □□□을 괴롭히고,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붙이자, 화가 난 ‘나’는 ‘점순’네 닭을 □□□□.	‘점순’과 ‘나’의 갈등 □□
□ □ □	‘점순’은 ‘나’가 닭을 죽인 사실을 □□□ 주고, ‘나’와 함께 □□ □□ 속으로 넘어짐.	‘점순’과 ‘나’의 갈등 □□

6. 「홍길동전」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 소설
성격	현실 □□적, 영웅적, □□적
배경	조선 시대
주제	불합리한 현실 □□과 □□ 세계의 실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최초의 □□ 소설임.</li> <li>영웅의 □□□□ 구성 방식을 취함.</li> </ul>

TEST 4단계

1. 「동백꽃」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____ 소설
성격	____적, ____적
배경	1930년대 ____ 농촌의 어느 마을
주제	____의 사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____ 서술자의 시선으로 전개됨.</li> <li>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____적 구성 방식을 취함.</li> <li>____, _____, 구어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음.</li> </ul>

2. 동백꽃의 시점

서술자	사건의 주인공
____	____
↓	
1인칭 주인공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술자와 사건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인 '____'이므로 '나'의 ____이 생생하게 표현됨.</li> <li>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나'의 ____하고 우둔한 모습을 통해 ____적인 분위기를 조성함.</li> </ul>	

3. 감자의 의미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에 대한 '점순'의 ____과 ____를 드러냄.</li> <li>'나'와 '점순'이 ____을 시작하게 되는 매개체임.</li> <li>'나'와 '점순'의 ____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줌.</li> </ul>
----	--

4. '나'의 집과 '점순'네의 관계

'나'의 집	'점순'네
____	____
'점순'네에게 ____을 ____ 집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양식도 꺾다 먹음.	'나'의 집에 땅을 빌려 주어 집을 짓고 땅을 소작할 수 있게 함.
↓	
일반적인 남녀 관계와 달리 ____의 딸이면서 ____적인 '점순'과, ____의 아들이면서 ____한 '나' 사이의 관계가 독자로서 하여금 ____를 느끼게 함.	

5. 소재로 드러나는 「동백꽃」 속 갈등 양상

____	'점순'이 '나'에 대한 ____의 표현으로 '나'에게 감자를 건네나, '나'는 '점순'의 말에 ____이 상하여 감자를 ____함.	'점순'과 '나'의 ____ 시작
↓		
____	'점순'이 '나'의 ____을 괴롭히고,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붙이자, 화가 난 '나'는 '점순'네 닭을 ____.	'점순'과 '나'의 갈등 ____
↓		
____	'점순'은 '나'가 닭을 죽인 사실을 ____주고, '나'와 함께 ____속으로 넘어짐.	'점순'과 '나'의 갈등 ____

6. 「홍길동전」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____ 소설
성격	현실 ____적, 영웅적, ____적
배경	조선 시대
주제	불합리한 현실 ____과 ____세계의 실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최초의 ____소설임.</li> <li>영웅의 ____구성 방식을 취함.</li> </ul>

O / X 문제

【1~8】 「동백꽃」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 1. 발단에서 ‘오늘도 또’라는 말을 통해,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당한 것이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O / X)
- 2. 이 글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O / X)
- 3.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O / X)
- 4. ‘감자’는 ‘나’와 ‘점순’의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 준다. .... (O / X)
- 5. ‘나’의 집이 ‘점순’네 집에 양식을 빌려 주었다. .... (O / X)
- 6. ‘나’는 ‘점순’의 마음을 알면서도 큰일이 날까 봐 모른 척하고 있다. .... (O / X)
- 7. ‘나’의 닭은 고추장을 먹은 이후로 계속 승리하여 ‘점순’네 닭을 죽이게 되었다. .... (O / X)
- 8. ‘동백꽃’ 속으로 함께 넘어지면서 ‘점순’과 ‘나’의 갈등이 해결된다. .... (O / X)

【9~10】 「홍길동전」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 9. 길동은 ‘호부호형’할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한다. .... (O / X)

10. ‘길동’이 입신양명의 꿈을 아버지에게 말함으로써 고민이 해결된다. .... (O / X)

1. O	2. O	3. X	4. O	5. X	6. X	7. X	8. O
9. O	10. X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2026 중1-2 국어 비상(박영민) | 3(1) 동백꽃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똑똑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 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뵈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랫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뽕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되?”